

경기는 3개월만에 소폭 개선, 각 지역 관광 호조

~ 활발한 이벤트나 반도체 관련도 플러스 요인으로 ~

(조사대상 2만 7,052사, 유효회답 1만 1,506사, 회답율 42.5%,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의 포인트

- 2023년 10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3포인트 증가하여 44.7로 3개월만에 개선되었다. 국내경기는 활발한 각종 이벤트 및 인바운드 수요와 함께 반도체 관련 등이 플러스 요인이 되어 소폭 상향하였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해외 경제의 리스크를 안고 있으면서도 개인소비와 설비투자가 버팀목이 되어 보합 상태로 추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 행락 시즌을 맞이하여 각종 이벤트개최나 인바운드 수요가 버팀목이 되어주었으며, 각 지역의 다양한 행사들이 호재로 작용하여 10개 업계 중 9개 업계가 개선되었다. 지역별로는 10개 지역중 7개 지역 28개 도부현(道府県)이 개선, 3개 지역 19개 도현(都県)이 악화되었다. 호조인 관광산업 이외, 주력산업의 생산·판매의 향상이 각 지역의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중소기업」「소규모기업」이 소폭이지만 5개월만에 모두 개선되었다.
- 2023년도의 최저임금은 전국가중평균으로 1,004엔(전년도 대비 43엔 증가)이었다. 이로 인하여 기업은 임금인상 이외에, 상품가격 인상이나 비용삭감등의 대응에 나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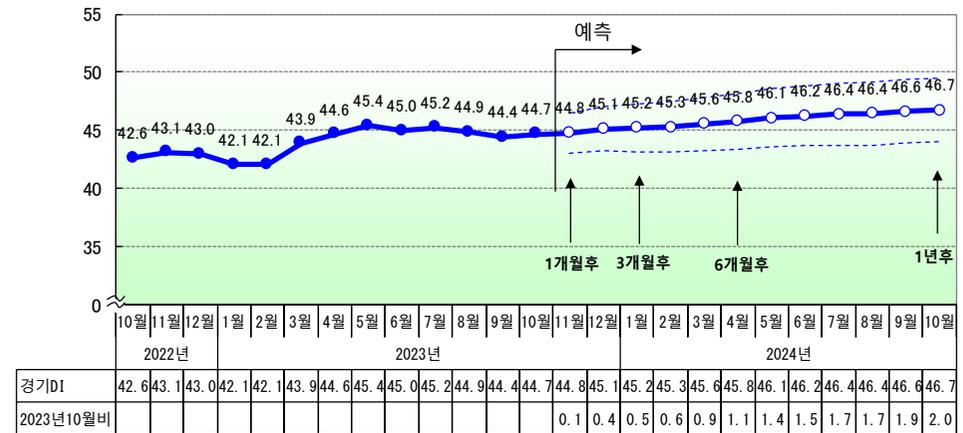
< 2023년 10월의 동향 : 소폭개선 >

2023년 10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3포인트 증가하여 44.7로 3개월만에 개선되었다. 국내경기는 활발한 각종 이벤트 및 인바운드 수요와 함께 반도체관련 등이 플러스 요인이 되어 소폭 상향하였다.

10월은 인바운드 수요나 행락 시즌에 의한 국내여행의 호조로, 각 지역의 관광산업이 경기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기업 이벤트 및 프로모션의 재개 등 개인 소비를 환기하는 움직임이 활발하였다. 더불어 반도체 관련 산업은 계속하여 호조를 이어나갔다. 한편 원재료 가격의 고공행진이나 만성적인 인력부족, 재고 증가에 의한 생산 조정, 생활필수품의 가격상승 등은 침체 요인이 되는 등, 호재와 악재가 교착하는 가운데에 이렇다 할 대책이 결여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 향후의 전망 : 보합으로 추이 >

향후는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한 소득증가가 개인소비에 플러스 요인이 되는 한편, 설비투자나 인바운드 수요의 한단계 높은 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GX(그린트랜스포메이션)의 추진이나 기업의 업적 개선, 감세(減稅)등을 포함한 경제대책의 실시 등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인건비의 증가나 생활필수품 가격의 고공행진, 인력부족의 장기화, 2024년의 이슈 등은 침체 요인이 된다. 또한 중동정세의 긴박화와 중국 부동산 시장의 동향 등, 환율 동향을 포함하여 해외 경제의 움직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해외 경제의 리스크를 안고 있으면서도 개인소비와 설비투자가 버팀목이 되어 보합 상태로 추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과 구조방정식 모델의 결과를 Forecast Combination 수법으로 산출. 점선은 예측치의 폭(예측구간)을 나타내고 있다.